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 2022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보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희생적인 드림으로 함께 해 주시는 귀한 동역의 손길들이 있기에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움이 시작된 시기에 허락된 여호수아 파운데이션의 후원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한 줄기 빛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가파른 산을 통과하며 지금껏 달려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주님의 큰 긍휼하심 때문이고, 더불어함께 해주신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위해 희생적인 헌신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사역 속에 주께서 넓혀주신 지경의 소식을 나눕니다.

### 1) 교회개척



2008년 초에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도시 외곽에 개척한 현지교회(주님의교회)를 중심으로 위츨(Huichol)인디오 마을들에 교회를 개척해 올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는 56개의 크고 작은 인디오부족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남쪽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지만 중부로부터 북쪽의 산맥지역에 있는 인디오부족은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기에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 중 멕시코 중심부로부터 북쪽까지의 인디오부족을 복음화 하고자 섬기고 있는데, 지난 시간 나아릿 주에 있는 포초티탄(예수님이 길되신 교회), 로스 카호네스(믿음교회), 산 이시드로(예수님이 소망되신 교회)

마을, 그리고 두랑고 주에 있는 라스 필라스(임마누엘)마을에 믿음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 올 수 있었습니다.

### 2) 사역 이양준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위한 교회의 본을 보이기 위해 개척한 과달라하라의 주님의 교회가 어느 덧 14년을 지나 1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공백아닌 공백을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졌지만, 현지 리더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 가까이 함께 섬기며 헌신하고 신학공부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하비엘 형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2023년 6월 졸업예정)점진적으로 사역을 이양하고 현지 리더십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사역계획 및 기도요청

3-1. 3년 전에 개척을 시작한 산타 바바라 마을에 8가정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이 있어 **대지 구입과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2. **청소년 연합사역**: 올초부터 청소년 사역을 위해 연합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부터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연합모임을 주변의 교회들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3-3. **현지 및 인디오목회자교육**: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들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만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본 교회에서 년 1회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연계하여 년 2회에 걸쳐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3-4. **청년 사역을 위한 시도**: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통해 대학생사역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3-5. **토요복음학교 재개** 예정: 코로나 전에 시작했다가 중단되었던 어린이(전도)카페교실을 다시금 정비해서 곧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4-1.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4-2. 사역의 필요가 공급되어 사역의 필요를 위해 사역지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4-3.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2년 11월에...

추기성, 정지연 선교사 드림